

엘리야 - 제12번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리라

Jeff Pippenger

2023-10-17

우리는 여전히 엘리야를 예언적 상징으로 다루고 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이 말하지 않는 한 삼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길르앗 주민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1.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그 세 해가 사실은 세 해 반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그가 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영접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날들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는 성읍의 한 과부에게로뿐이었느니라. 누가복음 4:24-26.

3년 반의 기간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로 묘사된 교황권이 암흑시대 동안 통치하던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예언적 3년 반을 가리킨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몇 가지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여, 그가 가르치며 내 종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함이라. 또 내가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이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0-23.

이세벨에게 주어진 "회개할 기간"은 엘리야 시대에는 삼 년 반이었고, 교황의 박해가 있던 암흑시대에는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예언적 삼 년 반의 기간이었다. 이세벨과 그녀와 음행한 유럽의 왕들에게 내린 형벌은 환난의 침상에 던져지는 것과 그녀의 자녀들의 죽음이었다. 암흑시대 동안에도 환난의 침상에 던져졌던 신실한 영혼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살 것이다. 환난의 침상에 던져졌을 때, 신실한 자에게는 생명,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결말이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 결정되었다. 신실한 자들의 환난의 침상은 인내와 생명을 낳았다. 그들의 환난의 침상은 삼 년 반의 끝 무렵, 엘리야가 사렙다를 떠나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모이라고 명하기 직전에 끝나게 되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1260년의 전 기간 내내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로 그들의 불같은 시련의 때를 단축하셨다. 교회에 닥칠 '큰 환난'을 예언하시면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줄어들 것이다' 하셨다. 마태복음 24:22.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 박해는 1798년 이전에 종식되었다. 대쟁투, 266, 267.

교황권에 대한 "환난의 침상"의 심판은 "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지만, 동시에 그 행위로 신실함을 드러낸 이들에게는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서 보듯이 드러난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그 병이 심하여 그에게서 숨이 끊어졌더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게 달라. 그가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데려가 자기 침상에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우거하는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또한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그가 아이 위에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다시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매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다시 들어오고 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서 집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았나이다. 열왕기상 17:17-24.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아이를 다시 살린 "여호와의 말씀"이 곧 "진리"였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위에 자기 몸을 세 번 펴서 눕힌 그 과정은, 과부에게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히브리어 'emeth'는 본문에서 "진리"로 번역되며, 알파와 오메가의 창조적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세째,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단어이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을 나타낸다.

신실한 자들은, 삼 년 반으로 상징되는 유예의 "기간"에 있던 불충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환난의 침상"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음행을 저지르고 이교의 교리를 가르친 음녀를 따른 무리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그 결과였다. 엘리야의 가르침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믿은 다른 무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다.

그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빵을 주었고,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순종은 두아디라의 암흑기에 있던 신실한 자들을 상징한다. (주목할 점은, 엘리야가 과부에게 먼저 자신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녀의 아들과 자신을 먹이라고 명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엘리야가 먹을 양식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고, 그다음에 교회가 받는다.) 우리는 신실한 자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불꽃과 같은 눈과 빛난 놋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나는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18, 19.

교황권에게 회개하라고 주어진 "기간" 동안 신실한 이들은 선한 "행위"를 드러냈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행위는 "처음보다 더 많았다." 그 "기간"이 끝나 갈 무렵, 그리스도께서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을 보내셨고, 그는 교회에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가르치던 교황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일을 시작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 위에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권세와 같으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6-29.

교황권에게 회개하도록 주어진 '기간'의 시작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 "네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다. 그들이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가르치며 내 종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하도록" 용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간'의 끝에는 신실한 자들이 더 이상 교황권이 그 미혹을 계속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떠올랐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기독교 세계를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에게 발언이 허락된 로마에 대한 위대한 항의는 결코 침묵시킬 수 없었다. 그 항의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국가들의 해방으로 이어질 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위대한 논쟁, 80.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음식은 그들이 받는 교리나 메시지이다. 음행은 교회가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자기의 우상숭배적 교리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세벨에게 회개하도록 주어진 '기간' 동안, 교회는 보호를 위해 광야로 도피하였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 그 여자가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양육을 받더라... 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 자기 처소인 광야로 날아가게 하시니,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뱀의 낫을 피하여 양육을 받더라. 뱀이 그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자기 입에서 홍수 같이 물을 토하매, 땅이 그 여자를 도우니, 땅이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한 그 홍수를 삼키더라. 요한계시록 12:6, 14-16.

이세벨과 아합의 박해 시기에 오바댜는 교황권 시대에 광야에서 주어진 보호를 상징했다.

아합이 그의 집을 관리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그런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였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백 명을 데려다가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였다.) 열왕기상 18:3, 4.

예언자들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긴 오바댜의 행위는, 교황제도의 교리를 먹기를 거부하고 또한 그녀가 유럽의 왕들과 행한 음행으로 표상되는 불경건한 관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신실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장소를 상징한다.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을 피해 양식을 얻고 보호를 받도록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던 그 기간은 교회가 광야로 도피했던 그 기간에 해당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는 오바댜의 행위로 표상되었다.

히브리어로 '사르밧'이라 불리는 사렘다는 엘리야가 숨었던 곳으로, '정화'를 뜻한다. 이세벨에게 회개하도록 주어진 기간이 끝나자,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가서 아합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갈멜로 모이라고 명했다.

오바다가 길을 가던 중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났다. 그는 그를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당신이 내 주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다. 가서 네 주인에게 '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여라." 열왕기상 18:17, 18.

엘리야가 사렘다의 과부와 함께 지낸 때는 중세 암흑기를 상징한다.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죽기 직전이라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있었다. 예언에서 과부는 교회를 상징하며, 그녀는 죽기 직전이던 광야의 교회를 대표했다.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다. 깨어 있으라. 남아 있으나 곧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3:1, 2.

그녀는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보라, 내가 그곳 한 과부에게 네게 음식을 주도록 명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그곳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라. 그가 그 여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 여인이 가지러 갈 때에 그가 다시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지금 나무 두 토막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는 죽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7:8-12

사렘다의 과부는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있었다. 그 과부는 이세벨 시대의 신실한 자들을 대표한다. 그녀의 아들은 두아디라 시대에 첫째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죽은 이들을 대표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하고,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더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더라.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다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4-6.

그 과부는 또한 사데에서 합당하여 흰 옷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

사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네게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4, 5.

두아디라의 네 번째 교회에 속한 이들 가운데, 신실하게 죽어 과부의 아들로 상징된 이들은 다섯째 인에서 흰 옷을 받았다.

그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또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시되, 자기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라 하셨다. 요한계시록 6:9-11.

중세 암흑기의 순교자들은 흰 옷을 받았고, 자신들처럼 또 다른 무리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교황권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교황권이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머지않아 닥칠 일요일 법 위기 동안 두 번째 무리, 곧 교황권에 의해 순교할 자들이 살해될 때까지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화잇 자매는 교황권에 대한 심판을 청하는 순교자들의 호소를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과 연결시킨다.

"다섯째 인이 열렸을 때,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 뒤에 신실하고 참된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들이 이어졌다. [요한계시록 18:1-5, 인용]" Manuscript Releases 20권, 14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은 1절과 4절의 두 음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 음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며, 이는 셋째 천사의 강력한 운동이 하나님의 다른 양 무리를 바벨론에서 불러낼 때 시작되는 일요일법 박해의 시작을 알린다. 그녀는 또한 다섯째 인의 구절을 일곱째 인이 열릴 때로 위치시킨다.

[요한계시록 6:9-11 인용]. 여기서 요한에게 보여 준 장면들은 현실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한 시점에 일어날 것들이었다.

"요한계시록 8장 1-4절 인용됨."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197쪽.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에서 일곱째 인이 열린다.

그가 일곱째 인을 여셨을 때, 하늘에는 약 반 시간 동안 고요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섰고,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드리도록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한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요한계시록 8:1-4.

다섯째 인에서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를 구하는 암흑시대의 순교자들의 기도는, 일곱째 인이 열릴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영감은 일곱째 인의 개봉을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과 연결한다. 이는 바로 그 둘째 음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을 갑절로 더하시기 때문이다. 한 번은 암흑시대의 순교자들 때문에, 또 한 번은 주일법 위기의 피의 대학살 때문에.

또 내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그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녀에게 갚고, 그녀의 행위대로 그녀에게 갑절로 갚아라. 그녀가 채운 그 잔을 가지고 그녀에게 갑절을 채워 주어라." 요한계시록 18:4-6.

사데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는 1798년에 끝난 두아디라의 역사에서 나온 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사렙다의 과부, 곧 1844년에 혼인 잔치에 가고 있던 과부로 표상된다.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다니엘 8장 14절에 제시됨), 다니엘 7장 13절에 제시된 바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신 것,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바 주께서 자기의 성전에 임하신 것은 모두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바 혼인에 신랑이 임하는 것으로도 표상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6쪽.

그 과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자신에게 대접하라고 그녀에게 명했다. 그녀는 두아디라의 신실한 소수를 상징하며, "불"을 위해 "나뭇가지 두 개"를 모으던 사데의 신실한 소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두 막대기"는 이교와 이어서 교황권에 의해 짓밟혔던 고대 이스라엘의 두 집을 가리키지만,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함께 모여져 "한 막대기"로 결합되게 되어 있었다.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너 인자야, 너는 한 막대기를 가져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무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 그 위에 '요셉,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무인 온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라고 쓰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이어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그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네 백성의 자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이것들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겠느냐?' 할 때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무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그와 합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내 손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리라. 네가 그 위에 쓴 그 막대기들이 네 손에 들려 그들의 눈앞에 있으리라. 그들에게 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 있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며, 이스라엘 산들의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그 모든 범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죄를 범하던 그 모든 거처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니, 그들이 또한 내 규례를 따라 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 거주할 것이며, 그들 곧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살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은 그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며, 영원히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영원히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둘 때에,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을 이방 사람들이 알리라. 에스겔 37:15-28.

엘리야가 사렘다를 떠나 아합과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부르러 갈 때, 광야로 도망한 과부가 된 교회는 1844년 10월 22일의 혼인에 앞서 과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불을 위해 나뭇가지 두 개를 모으고 있었다. 두 막대기를 모으는 것은 이사야 7장에 제시된 마지막 65년 기간에 성취된 밀러파 운동의 결집이다. 북왕국은 기원전 723년부터 1798년까지 모세의 저주를 받았고, 남왕국은 기원전 677년부터 1844년까지 같은 저주를 받았다. 1844년에 그 두 실제 국가의 영적 후손들이 하나의 막대기, 곧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 모였다.

적어도 에스겔은 그 두 막대기를 하나의 나라가 되는 두 나라로 정의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라.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이 무너져 더 이상 민족을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우리가 65년의 예언을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다음 글에서 엘리야의 상징성을 계속 다루겠습니다.